

원주민 문제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기⁴⁾

새로운 문제 제기

원주민 문제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논문은 모두 쓸데없는 말장난일 뿐이다. 그래서 그런 논문들은 필연적으로 불신을 불러온다. 선한 의도로 논문을 썼다고 해서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발행된 대부분의 원주민 관련 논문들이 문제의 실상을 감추거나 왜곡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사회주의 비평은 원주민 문제의 실상을 명확하게 밝혀냈다고 평가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주민 문제의 근원을 페루의 경제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원주민 문제는 페루의 행정제도나 사법제도·교회제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인종의 이중성이나 다양성 때문에 발생한 것도 아니며, 문화적·도덕적 성격 때

4)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기(José Carlos Mariategui, 1895-1930)는 정치사상가로,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을 페루의 정치 상황에 처음으로 적용한 인물로 유명하다. 본 논문은 그의 대표적인 문집인 <페루의 현실에 대한 7가지 해석적 시론> (1928)에 나오는 글의 일부다. 그는 마르크스 이론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고 신봉했지만 페루에 거주하는 인디언들이 갖고 있는 종교나 신화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의 문학관은 토속적인 주제와 언어를 중시하면서 동시에 전위적인 예술적 경향을 강조한 걸로 유명하다. 이러한 문학관은 페루 문화를 전반적으로 재조명하는 데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문에 생긴 문제는 더욱 아니다. 원주민 문제는 페루경제에서 유래한 문제로, 바로 토지소유제도에 근본적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가모날(gamonal)⁵⁾ 봉건주의를 존속시킨 채, 경찰력과 같은 행정수단을 동원하거나 교육제도·도로망 건설 등을 통해 원주민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은 모두 피상적이고 제한적인 효과만을 거두게 될 것이다.⁶⁾

5) 가모날은 페루·볼리비아·에콰도르·콜롬비아·베네수엘라 및 중미지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대토지 농장주와 시골의 족장을 의미한다.

6) 원주민주의(indigenismo)의 열정적 복음으로 꼽히는 발카르셀(Valcárcel)의 『안데스의 폭풍, *Tempestad en los Andes*』 서문에서 마리아테기는 자신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원주민의 부활에 대한 신념은 케추아족 토지를 물질적으로 <서구화>하는 과정에서 도래하는 게 아니다. 원주민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문명화나 백인의 글에 대한 문자해독력이 아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신화요 사회주의혁명사상이다. 바로 그 신화와 사상이 한때 몰락했었던 인도와 중국 민중의 잠을 깨운 결정적 요인이다. 세계의 역사는 동일한 궤적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잉카의 민중은 왜 세계적인 조류에 무딘 것일까? 한때 가장 발전되고 조화로운 형태의 공산주의 시스템을 건설했었던 민중들이 이 흐름에 동참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원주민주의 운동은 세계적인 혁명 경향과 아주 유사하다. 나는 누누이 말했었다. 사회주의 방법을 통해 토속적인 것의 가치를 이해하고 합당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이다. 발카르셀은 이러한 내 발언이 아주 정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전통주의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발카르셀은 자신의 원주민주의를 사회주의 틀 안에서 멋지게 해결했다. 발카르셀은 이 책에서 ‘원주민 프롤레타리아들은 자신들만의 레닌을 기다리고 있다’ 고 말한다. 마르크스주의자의 언어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이다.

원주민 부활이 철학과 문화적인 영역에만 머문다면 역사적인 구체성이 떨어질 것이다. 실재성과 유형성(有形性)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부활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통해 원주민 문제를 새롭게 숙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원주민 문제를 인종과 도덕과 같은 추상적인 문제로 여기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보다는 오히려 정치와 경제, 사회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로 인식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원주민 문제를 비로소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부의 비평가들은 부르주아 자유교육이라는 틀을 아직까지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원주민 문제에 인종적 측면을 뒤섞어 초점을 흐리게 된다. 원주민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와 경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실을 호도하기 위해 사이비 이상주의 논리를 사용한다. 정치개혁을 통해서 원주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혁명적인 변증법을 반대하는 엉터리 비평을 하고 있다. 그들은 원주민의 복잡한 관습과 나쁜 버릇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느리지만 일상적인 진보를 통해서만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는 다행히도 모든 의문점과 오류를 해소해준다. 정복은 정치적 행위였다. 정복자들은 케추아 국가의 독자적인 발전과정을 난폭하게 파괴했다. 하지만 원주민의 법률과 관습까지 송두리째 바꿨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 행위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到來)한 것만은 분명했다. 정신과 물질을 포함한 모든

가모날주의(gamonalismo)는 원주민 보호에 관한 모든 법률과 법령을 무력하게 만든다. 농장주, 대토지 소유자는 봉건영주로 그들의 권력은 환경과 관습에 의해 보호받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권력에 대항하는 성문법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무상노동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대토지 농장에는 무상노동만이 아니라 강제노동까지도 여전히 남아있다. 판사, 부지사, 경찰서장, 교사, 세무공무원 역시 대토지들을 봉건화하고 있기에,

영역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케추아 족의 삶은 제도의 변화와 함께 근본부터 완벽하게 변모했다. 그리고 페루의 독립 역시 또 다른 정치행위였다. 하지만 페루의 경제·사회적 구조 역시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았다. 이 역시 식민시대와 마찬가지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루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 또한 같았다. 페루의 정치엘리트들은 식민시대의 경제적 하부구조를 거의 손대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주민의 실제적인 상황 역시 개선되지 못했다. 하지만 원주민의 법적인 지위는 변했다. 그들은 정치적·사회적으로 해방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루가 원주민해방의 길로 계속 나가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 책임이다. 독립으로 거대한 이익을 획득한 계급들 때문이다. 어설픈 변호사와 문인들은 대토지농장주들의 이익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원주민문제를 영원히 신비화하려 든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원주민이 도덕적·물질적으로 가난한 이유는 수세기 전부터 그들을 경제적·사회적 제도로 억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식민지 봉건제도를 계승한 제도가 바로 가모날주의(gamonalismo)다. 그러므로 가모날주의를 낳은 채 진지하게 원주민의 구제를 말할 수는 없다. <가모날주의>라는 용어가 단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범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대토지농장주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모든 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다. 그것은 가모날 외에도 공무원과 중개인·대리인·기생계급 등으로 이어진 거대한 착취구조를 의미한다. 때론 문자를 깨우친 원주민이 가모날주의에 동원되기도 한다. 가모날에 봉사함으로써 동족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변모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낳는 핵심요소는 바로 헤게모니 때문이다. 페루의 정치구조 안에서 봉건영주가 갖는 헤게모니 때문에 가모날주의가 유지되는 것이다.

페루는 자유로운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모날주의 즉 봉건주의를 청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술한 이유들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공화주의 원리를 수행해야 할 계급들이 오히려 원주민구제를 방해하고 나섰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지난 백 년 동안 여전히 예속상태에 빠져 봉건제도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어느 날 갑자기 페루에 기묘한 창조력이 나타나서 원주민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자유주의로는 혁명적인 사고, 심지어 개혁적인 사고조차도 불가능하다. 사회주의의역야만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다. 역사적인 필연으로 출현한 것이다. 지금 페루에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진보적인 부르주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결코 존재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 틀로 페루를 재조직화하지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페루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있다. 사회주의자가 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민족주의자도 혁명주의자도 될 수 없는 시대에 있기 때문이다.”

법률로는 가모날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 고지식하게 법률을 집행하려는 공무원은 중앙권력에 의해 축출되고 희생될 것이다. 중앙권력이 항상 가모날주의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모날의 권력에 대항하는 자는 직접적이든 의회를 통해서든 간에 결국은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주민 문제를 새롭게 검토할 때마다 보호법령제정보다는 농지소유제도에 대해 훨씬 더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러한 경향은 1918년 호세 A. 엔시나스(José A. Encinas) 박사가 『원주민 보호법령제정에 대한 기여』(Contribución a una legislación tutelar indígena)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그때부터 지금까지⁷⁾ 보호법령제정보다 토지소유제도의 방침에 훨씬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⁸⁾ 하지만 엔시나스 박사는 논문에서 경제·사회적 프로그램을 취급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그의 논문이 애초부터 보호법령제정에 대한 기여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논제는 원주민 재산보호라는 법률적 목적에 제한되어야만 했었다. 그는 공유지 불하법(Home Stead⁹⁾)의 배경을 묘사하면서 정부와 교회의 토지분배를 추천하지만, 대토지농장주인 가모날의 토지수용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토지농

7) 본 연구는 1918년 페루의 리마에서 출판된 것으로, 마리아테기는 1929년 산 마르코스(San Marcos) 대학교의 『대학 잡지』(Revista Universitaria) 15권 1호 35-143쪽에 재 수록된 글을 인용하고 있다.

8) 곤살레스 프라다(González Prada)는 초기의 선동적인 강연들에서 진정한 페루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안데스 계곡에 거주하는 수백만의 원주민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신판 『투쟁의 시간』(Horas de lucha)에 있는 「우리의 원주민」(Nuestros indios)이라는 장에서도 새로운 사회의식의 선각자로 원주민을 지칭하고 있다. “인간의 심리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인간은 내부의 노예근성을 집어 던질 때마다 조금씩 성장한다. 인간은 무언가를 획득하면서 계급적으로 한 단계 상승한다. 계급이란 축적한 부의 양에 따라 분류된 그룹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지구(氣球)와는 정반대로 무거운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간다. 그러므로 학교를 말하는 사람에게는 학교와 빵이라고 대답하라. 원주민 문제는 교육문제라기보다는 경제문제이고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9) Home stead란 영어로 된 용어로 1862년 미국의 공유지 불하법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는 개척 이주민들이 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유지를 불하하는 법을 시행했다. 엔시나스는 페루 정부가 원주민 부락과 관련해서 유사한 법령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장의 불가피한 영향에 대해 반복적으로 고발했던¹⁰⁾ 그의 논문은 원주민 문제에 대한 현재의 사회·경제적 비판을 예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은 원주민 문제를 행정·법률·인종·도덕·교육·종교 등 일방적이고 배타적인 기준의 문제로만 간주하는 다양한 논문들의 가치와 신용을 추락시키게 되었다.

원주민 보호에서 가장 오래되고 명확한 실패 중 하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을 일상적인 행정사안으로 축소시켜 버렸던 사람들이 행한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스페인 식민 시대부터 철저하게 만들어진, 해박하고 장황한 행정법규들은 원주민을 보호하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다. 공화국 역시 독립할 때부터 원주민을 보호하는 수많은 행정명령과 판결들로 넘쳐난다. 원주민들에게서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거나 남용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됐다. 하지만 과거의 엔코멘데로와 같이 오늘날의 가모날 역시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 법률과 실제적용이 다르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국 법령이 채택한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대토지 소유 제도를 발전시켰고 원주민 토지의 병합 역시 수월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된 원주민의 상황은 스페인 법령에 의해 아주 현실감 있게 관찰되었다. 하지만 경제 구조적으로 순수한 봉건주의체제 하에서 법률개혁이 행정개혁보다 더 크고 실제적인 가치를 갖지는 못했다. 이제 원주민과 토착공동체의 토지 대부분은 완벽하게 흡수되었다.¹¹⁾ 한편 영원할 것 같았던 봉건

10) 엔시나스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원주민의 사회적 조건을 개선시키려면 경제적 조건을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원주민의 경제적 역량과 행위는 모두 토지에 달려 있다. 원주민에게서 토지를 수탈하는 행위는 그들의 고유한 특징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주민을 경제적으로 개선시키는데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노동만한 방법은 없다. 다른 어떤 곳이나 형태로도 토지에서와 같은 부의 원천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다.”(『원주민 보호법령제정에 대한 기여』, p.39)

“부에 따른 상대적인 사법제도는 경제적 필요에 근원을 두고 있다. 페루의 민법은 경제 원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부를 거론할 때마다 대단히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이다. 페루에서는 소유권을 제한하지 않아 원주민 재산의 강탈과 함께 대토지 소유제가 발전했으며, 비생산적인 토지소유는 원주민의 봉건화와 빈곤이라는 문제를 유발시켰다.”(p. 13).

제도에서 벗어난 다른 국가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봉건토지의 해체 없이는 어떤 영역에서도 자유권이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민 문제가 인종문제라는 가정은 제국주의가 사용하는 레퍼토리 중 가장 낡은 개념이었다. 열등종족이라는 개념은 서구백인들의 팽창과 정복에 아주 유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원주민과 백인 이주자들의 적극적인 혼혈로 원주민을 해방시킨다는 생각은 천진난만할 정도로 순진하다. 그것은 단지 목축업자의 초보적인 의식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반사회학적인 개념이다. 아시아 민족은 페루의 원주민보다 결코 우등하지 않다. 하지만 그들은 유럽 피와의 혼혈 없이도 가장 열정적이고 창조적인 분야에서 서구문화에 완벽하게 동화되었다. 그러므로 혼혈을 통해 원주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봉건체제의 수호자인 악덕 변호사들이 만든 값싼 발명품에 지나지 않는다.

원주민 문제를 도덕적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은 자유적·인도적·계몽적인 개념의 구현이다. 그들은 서구의 정치질서 내에서 〈인권동맹〉을 고취시켰다. 유럽에서 문명화의 도덕의식을 과도하게 신봉했던 사람들은 노예 제반대 회의를 개최, 식민주의자들의 범죄를 고발했다. 하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 곤살레스 프라다(González Prada)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¹²⁾

11) 1824년 공동 토지제의 폐지는 소지주계급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정책적 의도와는 반대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소수에게 토지가 집중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독립 이후에도 원주민이 점차 토지를 빼앗기는 또 다른 과정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눈에 띌 정도로 심화되었다. 이 시기 해안지방의 경계는 급속도로 변모해 날이 갈수록 산악지역의 농작물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대농장은 이러한 수요를 이용해 해안지방에 있는 원주민들의 공동 토지까지 팽창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난폭하게 진행된 공동 토지의 약탈과정으로 인해, 이 시기 수많은 원주민들의 집단봉기가 집중되었다.

12) 마리아테기가 이 부분을 인용한 것은 정말 재미있다. 이 부분은 수필의 문맥 내에서 행했던 진술의 의미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곤살레스 프라다는 자신이 제시했던 첫 번째 방법은 터무니없고 불가능한 것으로, 폭력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몇 줄 뒤에 다음과 같이 아주 명백한 언어로 끝마친다. “결론은 바로 이것이다. 원주민은 압제자의 선한 인간성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구제될 수 있을 것이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백인은 또 다른 피사로(Pizarro)요 발베르데(Valverde)이거나 아레체(Areche)이다.”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그는 “원주민의 상황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 압제자들이 피압박자의 권리를 알게 되어 그들을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피압박자들이 압제자들을 벌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건함을 획득하는 것이다”¹³⁾라고 썼다. 페루의 원주민보호협회(1909-1917) 역시 동일한 희망을 표상한다. 협회의 진정한 목적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원주민 보호였다. 이는 협회의 지도부가 독일 출신의 실용적 관념론자인 도라 메이어(Dora Mayer)¹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원주민보호실험은 페루와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수행되었다. 하지만 인도주의 설교로는 유럽의 제국주의를 중단시키지도 방해하지도 못했다. 또한 제국주의의 방법들을 개선하지도 못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은 이제 해방운동을 펼치는 식민지 민중의 연대와 역량밖에 믿을 게 없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주의만의 독점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로맹 롤랑(Romain Rolland)과 같은 자유주의 석학들이 지지하는 현대 유럽의 반제국주의 행동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 행위 또한 몇 세기 전부터 이성과 도덕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종교적 행위는 아주 열정적인 것으로 최소한 아주 막강한 권력을

13) 곤살레스 프라다, 『우리의 원주민』, 『투쟁의 시간』, 2a edición.

14) 도라 메이어 데 즐렌(Dora Mayer de Zulen)은 원주민보호협회의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실제 데이터를 냉정하게 분석해볼 때, 원주민보호협회는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마리아테기가 제안했던 원주민구조 경험이다. 이방인 보호자들은 지체되고 노예화된 상태의 원주민을 구조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원주민의 요구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즉 무료봉사에 나선 변호인처럼 정부에 대신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바로 그 원주민보호협회의 흥미로운 평가보고서를 보면, 도라 메이어는 협회의 사람들이 페루의 <책임감 형성>을 위해 활동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페루가 공화국으로 독립을 획득한 백년 뒤에 도, 통치자부터 가모날과 사제를 거쳐 계몽된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페루인들의 의식수준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잉카의 민중들이 이웃들로부터 여전히 끊임없는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잉카의 민중은 비인간적인 박해로부터 즉시 구조되어야만 하며 페루 또한 국가의 명예를 회복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라 메이어의 충실한 증언에 의하면, 원주민보호협회가 이룬 최고의 업적은 바로 원주민을 각성시켰다는 것이다. “일어나길 바랐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 원주민 자신들이 다른 계급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권리회복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십자군 활동이 현학적인 법률과 신의 섭리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의 운명은 본질적으로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곤살레스 프라다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독특한 관점이나 사회주의적 기준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 그런 그가 원주민문제의 실패 원인으로 경제적 본질 문제를 내세웠다. “다른 방법으로는 발생할 수 없었다. 착취는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불공정을 저질렀고 평등이란 측면에서는 부정의(不正義)가 만연했다. 그러므로 원주민 노동력의 무분별한 남용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레파르티미엔토와 미타 제도를 폐지하는 것, 즉 모든 식민지 경제체제를 변혁시키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노동이 없었다면 스페인의 보물 상자는 비었을 것이다.”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자유주의 설교보다는 종교적인 설교가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종교적 설교가 스페인 가톨릭주의의 열광적인 신자들과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도덕성을 폭넓게 호소한 반면, 자유주의 설교는 얼마 안 되는 진지한 크리오요들에게 자유주의를 설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원주민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반역사적인 희망이다. 오늘날 해결책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먼(너무도 먼!) 옛날 스승들처럼 원주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어떻게 선교사들에게 원주민과 가모날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한다.¹⁶⁾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원주민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기대할

15) Op. cit.

16) 사회주의청년행동(Acción Social de la Juventud)의 리더 중 하나인 호세 레온 이 부에노(José León y Bueno)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단지 선교사들만이 원주민을 구출하고 복원할 수 있다. 그들은 가모날과 소작농, 대토지농장주와 코무네로 사이의 중개자로 있으면서, 크리오요 호족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충실하게 복종하는 총독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자연에 대한 교훈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숙명론과 자유론에 입각해 삶을 해석하며, 축제에서 대중이 저지르는 감각적 범람과 음란을 꾸짖고, 원주민의 숭고한 사명을 드러낸다. 그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페루에

수 있단 말인가? 라스 카사스(Las Casas) 신부와 같은 수도사들로 넘쳐났던, 즉 교회의 정신적·지적인 역량이 오늘날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중세의 질서에서도 실현할 수 없었던 교회의 역할을 오늘날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는 재림론자들이 가톨릭 사제보다 훨씬 낫다. 오늘날 가톨릭 성직자들은 복음전도의 소명을 나날이 덜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민 문제는 교육문제라는 인식은 아직까지 엄격하고 자율적인 의미에서 교육적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의 교육학은 사회·경제적인 요소들을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대의 교육 철학자들은 교육이 단순한 학교나 교육방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경제·사회적 환경은 어쩔 수 없이 교사의 노동조건을 규정한다. 가모날주의는 근본적으로 원주민교육에 역행한다. 가모날주의는 원주민이 무지해야 유지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원주민을 무지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알코올 중독 배양에 쏟는 것과 동일한 정성을 쏟아 부었다.¹⁷⁾

근대의 학교는 봉건주의 대토지제도와 양립할 수 없다. 농촌의 취학 인구증가에 비례해서 학교를 증설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라도 말이다. 만약 학교가 순수하게 교육적인 사명을 완수한다면, 교육은 봉건주의의 종속적인 구조를 완벽하게 없애버릴 것이다. 물론 현재의 봉건적인 분위기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가능할 것이다. 현재 가장 효과적이고 훌륭한 교육이라 할지라도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을 것이다. 학교와 교사는 봉건적인 환경 속에서 변질될 수밖에 없다. 봉건주의는 사물의 기본개념인 진보주의나 진화적인 개념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실을 어중간하게 이해했을 때 원주민을 기속사에 숙박시켜 구제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고통스

게 통일상품위활력을 돌려줄 수 있다.”(*Boletín de la A.S.J.*, mayo de 1928)

17) 산악지역의 대농장주들에게는 사탕수수로 아과르디엔테를 생산하거나 밀수하는 사업이 가장 큰 이윤이 남는 사업 중 하나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심지어 해안지방의 농장주들까지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일용직 노동자와 소작인의 알코올 중독은 대농장주들의 번영에 필수불가결할 정도였다.

럽게도 불충분하다. 원주민 취학인구에 비해 기숙학교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옹호했던 원주민 문제의 교육적 해결책은 이제 공식적으로 배제되었다. 다시 말하거니와 교육전문가들은 교육문제를 경제·사회적 현실로부터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제안들은 실체 없이 모호하거나 막연하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주민문제를 토지문제라는 틀 안에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간략한 역사적 고찰¹⁸⁾

잉카제국의 인구는 어림잡아 보아도 천만 명이 넘었다. 천이백만 심지어는 천오백만 명까지 올려 잡는 학자들도 있다. 정복은 무엇보다도 지독한 대량학살이었다. 소수의 스페인 정복자들은 공포를 통해 원주민들을 지배했다. 그들은 원주민들이 자신들을 초인적인 존재로 여기도록 만들었다. 자신들이 지닌 새로운 무기와 말이라는 신기한 동물을 통해 원주민 사회에 미신적인 영감을 발생시킨 것이다. 정복에 이어 식민이 자연스럽게 뒤따랐는데, 식민지의 정치·경제적 조직이 원주민 종족의 멸절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다. 부왕청 시대에 야만적인 착취제도가 설립되었다. 스페인의 귀금속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부왕청의 경제활동은 광산개발에 집중되었다. 잉카 시대 원주민들은 장식물 용도로만 금과 은을 사용했으며, 본질적으로 농경민족이었기에 철광석에 무지했었다. 그래서 그들의 광산개발은 아주 작은 규모에 머물렀었다.

18) 마리아테기는 뉴욕에 있는 타스통신의 요청으로 <간략한 역사적 고찰> 부분을 작성했으며, 동 원고는 1929년 1월 16일 『내이션』(*The Nation*)지에 「새로운 페루」(*The New Perú*)란 제목으로 번역·게재되었다. 또한 이후 『레이버』(*Labor*)지에 「원주민 문제에 대하여, 간략한 역사적 고찰」(*Sobre el problema indígena. Sumaria revisión histórica*)이란 제목으로 다시 게재되었다.

스페인 인들은 광산개발과 오브라헤스(obrajes)¹⁹⁾ 운영을 위해 강제 노동과 무상노동체계를 세웠는데, 이러한 체제는 원주민 인구의 십분의 일을 없앨 정도로 치명적이었다. 스페인 인들이 페루의 농업적 특징을 보전한 채 토지의 개발에만 치우쳤더라면 원주민들은 하인의 예속상태 정도에 머물렀을 것이다. 하지만 광산개발에 몰두하면서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노예상태로까지 전락했다. 스페인 국왕에게 원주민 보호를 호소했던 인도적인 목소리가 없지는 않았다. 이러한 목소리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인물이 바로 라스 카사스 신부였다.

서인도제도의 법률²⁰⁾은 원주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고유한 공동체조직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생산량을 서서히 조정하라는 국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잉카의 사회와 경제를 파괴했던 냉혹한 봉건제도로 인해 원주민들은 계속해서 착취당했다. 페루의 해안지방에 정착한 스페인 인들로 인해 수많은 원주민들이 해안지방에서 쫓겨났다. 그 숫자가 너무 많아 작업에 필요한 인원이 부족할 정도였다. 부왕청은 추운 산악지대에 위치한 광산의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흑인노예를 수입했다. 하지만 흑인은 해안지방에 위치한 계곡과 평원의 따뜻한 기후와 노동에 더 적합한 인종이었다. 원주민들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지배는 더욱 강화되었는데, 이는 적대적인 원주민보다 숫자가 훨씬 적은 흑인노예 수입 덕택이었다. 흑인은 가사노동과 사무노동에 전념했다. 백인은 흑인과 쉽게 피를 섞었고, 이로 인해 해안지방의 특징 중 하나인 혼혈인종이 탄생했다. 혼혈인종은 스페인 인들과는 유착(癒着)한 반면 원주민들과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

19) 오브라헤스(obrajes)는 식민시대에 설립된 조잡한 양털직물공장으로 작업조건이 아주 비참하기로 유명했다.

20) 서인도제도의 법률은 원주민보호와 관련된 왕의 다양한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1512년에 제정된 부르고스 법률(Leyes de Burgos)과 1542년 제정되었다가 3년 만에 조용히 파기된 신법(Nuevas Leyes)이 유명하다. 1560년 이후에는 원주민 문제를 다루는 왕의 행정명령이 감소했다. 여하튼 1680년 제정된 <유명한 서인도제도 법령집>(Recopilación de Leyes de los reinos de las Indias)의 1/4이상이 원주민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다.

모두가 알듯이 원주민운동으로 독립혁명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크리오요들과 심지어는 페루에 거주하던 스페인 인들이 독립혁명을 고취하고 성취했다. 하지만 그들은 원주민 민중의 도움을 활용했다. 게다가 푸마카와(Pumacahua)²¹⁾같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일부 원주민들은 독립운동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유주의 정책과 평등주의 사상을 택했던 독립혁명세력은 원주민 구제를 당연하게 생각했다. 공화국 초기의 정책들 속에서 원주민들에게 우호적인 다양한 법률과 법령이 제정되었다. 그렇게 법률적으로는 토지분배와 무상노동폐지 등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페루의 독립으로 새로운 지배계급이 탄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든 원주민구제조항들은 단지 문서로만 존재할 뿐이었으며 그것을 실천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통치자도 없었다. 결국 식민시대 대토지 소유자이자 권력자였던 페루의 특권층은 토지와 원주민에 대한 봉건적 권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의견상 원주민을 보호하도록 수많은 조항을 개혁했지만, 잔존하고 있던 봉건주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원주민들에 대한 잘못은 부왕정보다 공화국 시대가 훨씬 더 크다. 물론 원주민들이 겪는 모든 불행과 낙담은 근본적으로 부왕청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재판의 시대에도 위대한 기독교의 목소리는 존재했다.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Bartolomé de Las Casas) 신부는 식민주의자들의 잔혹한 통치에 맞서서 원주민들을 열정적으로 방어했다. 하지만 공화국에는 원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집요하게 맞서는 방어자가 없었다.

부왕청이 중세 외국의 체제인 반면 공화국은 형태상 페루의 자유주의 체제이다. 그러므로 공화국은 부왕정보다 더 큰 책무를 지니고 있다. 공화국은 원주민의 상황을 개선시켜야만 했다. 하지만 공화국은 책무를 거스름으로써 원주민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었다. 원주민을 더 크게 실망시

21) 원주민 추장으로 초기에는 왕당파의 권력에 충성했다. 이후 쿠스코 반군 모임(Junta rebelde de Cuzco)에 합류, 아레키파(Arequipa) 원정대를 통솔했다. 왕당파 군대와 몇 차례 전투에서 승리한 후, 1815년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켰으며 그들의 불행을 격양시켰다. 원주민에게 공화국은 토지의 분배와 새로운 지배계급으로의 상승을 의미했다. 원주민은 농경의 관습과 영혼을 가진 종족이다. 그들에게서 토지를 탈취하자 원주민은 물질적·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원주민에게 토지는 항상 기쁨의 원천이었다. 원주민은 토지와 결합했다. 원주민은 “삶은 대지에서 왔다가” 대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원주민은 토지의 소유 외엔 모든 것에 무관심할 수도 있다. 원주민은 육체와 영혼으로 토지를 경작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이는 그들의 종교행위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크리오요의 봉건제도는 스페인보다 훨씬 더 탐욕스러웠으며 심각했다. 일반적으로 스페인의 <엔코멘데로>는 가끔씩 영주의 고귀한 성품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크리오요 <엔코멘데로>²²⁾는 평민의 결점만 잔뜩 지닌 채 하급귀족의 미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원주민의 예측상태는 공화국체제 하에서 결코 감소되지 않았다. 원주민의 봉기와 소요에 대한 갈망은 그들의 피 속에 억눌려 있었다. 공화국은 권리회복을 주장하는 원주민의 절망적인 외침에 항상 물리력으로 응답했다. 안데스 고원의 침묵은 이러한 답변의 비극적 비밀을 보존하고 있었다. 결국 공화국은 도로건설부역²³⁾이라는 명목으로 <미타>²⁴⁾ 제도를 복원시켰다.

22) 스페인의 엔코멘데로(encomendero)는 엔코미엔다의 최대 수혜자였다. 정복자와 국왕의 신하들은 엔코미엔다 제도를 통해 원주민을 분배받았다. 그들은 원주민에게 가톨릭 교리를 가르치고 보호해주는 대신 원주민들은 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과중한 부담의 예측상태를 초래했던 이러한 분배 제도를 스페인 국왕이(최소한 펠리페 2세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 아주 좋게 본 것은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신세계에 봉건영주제급이 다시 등장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마리아테기가 크리오요 엔코멘데로라고 언급하는 것은 대토지 소유자를 비유적으로 지칭하기 위함이다.

23) 도로건설부역은 1920년 법으로 제정되었다가 30년대 초반 산체스 세로(Sánchez Cerro) 독재치하에서 폐지되었다. 이것은 도로건설에 의무노동을 도입한 것이었다. 바사드레(Basadre)에 의하면, “도로는 연간 6-12일의 부역노동으로 건설된다. 해당 기간의 임금만큼 현금을 지불하면 면제될 수 있다. (...) 결국 도로건설부역은 원주민에게만 부과된 노동이었다.” (*op. cit.*, 4144-4145)

24) 식민시대 엔코미엔다 제도가 사라진 후 원주민에게 부과된 강제노동시스템이다. 미타(mita)는 원주민이 조세를 지불하는 대신 정부의 토목공사에 일정 기간 무상노동

공화국은 원주민 에너지의 고갈과 약화에도 책임이 있다. 공화국 치하에서 원주민 구제의 대의는 이제 몇몇 보스 정치인들의 선동적인 투기 상품으로 변했다. 크리오요 정당들은 원주민보호를 정책에 포함시킴으로써, 권리회복을 위해 싸워야 할 원주민들의 투쟁의지를 감소시켰다.

원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산악지역에는 가장 야만적이고 절대적인 봉건주의가 아직까지도 거의 변하지 않은 형태로 잔존하고 있다. 토지는 여전히 가모날의 손아귀에 있으며 원주민은 극단적인 체념상태에 빠져있다. 페루의 산악지역에서는 원시적인 농업 외에 다른 경제적인 행위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거대한 미국의 두 기업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광업이 바로 그것이다. 임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광산의 임금은 매우 낮고, 노동자 생존권의 보장은 실효가 없으며 노동 재해법조차 우롱되기 일쑤다. 허위의 선불금을 통해 노동자를 노예화하는 〈착수금〉 제도²⁵⁾는 원주민이 이러한 자본주의 기업들의 의지대로 일하도록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은 광산주가 제공하는 환경을 더 선호하는데, 그것은 봉건주의 농업으로 인한 극빈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페루의 사회주의 사상은 강력한 원주민보호운동의 결과로서 전파되고 보급되었다. 새로운 세대는 페루의 진보가 민중의 4/5를 점유하는 원주민과 농민의 복지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진보는 허위이며 최소한 페루의 것은 아닐 거라고 인식한다. 현재 이와 같은 운동이 페루의 예술과 문학에서 선포되었다. 새로운 세대는 토착적인 형태와 주제의 작품들을 눈에 떨 정도로 폭넓게 생산하고 있다. 예전에는 스페인 식민주의자들의 정신과 심성의 우위로 인해 저평가되었던 원주민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원주민 문학은 혁명 전 러시아의 농민주의(muzhikism) 문학²⁶⁾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다. 원주민 자신들

을 지불하는 제도다. 이러한 강제노동에 도로 및 건물의 건설과 함께 광산노동이 포함되었다. 미타는 1812년 카디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철폐되었다.

25) 노동에 대한 선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원주민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시스템으로, 대부분의 경우 원주민은 빚더미에 얽매어 결코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러한 빚으로 인해 원주민은 무기한 강제노동에 시달려야만 하는 것이다.

이 새롭게 자각했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 예전에는 머나먼 거리로 인해 의사소통조차 없었던 원주민들이 이제는 하루하루 다양하게 결합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정부의 후원을 받아 원주민 대회²⁷⁾와 같은 주기적인 모임을 시작했다. 하지만 원주민의 권리회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혁명적 성격으로 재빠르게 변하자, 정부가 개입해 진보적 요소를 배제한 어용 대표단을 출범시킴으로써 모임은 변질되었다.

원주민주의의 경향은 이제 정부의 공식행위를 압박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처음으로 원주민주의 관점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받아 몇 가지 정책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정책들은 가모날주의의 이익을 건드리지 않아 결국은 효력이 없게 되었다. 역시 처음으로 원주민문제가 사회·경제적인 영역에서 계획되고 있다. 예전에는 지배계급의 수사학에 현혹되었던 문제가 사실은 토지문제와 동일한 문제라는 인식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원주민문제는 인도적인 형태로는 결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확신이 나날이 명백해지고 있다. 박애주의운동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보스정치가와 영터리 변호사로 이루어진 보호단체는 원주민운동에 대한 조롱일 뿐이다. 지금은 사라진 원주민보호협회와 같은 단체의 행위는 사막에서 외치는 소리였을 뿐이다. 원주민보호협회는 당시 보호운동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했다. 그들의 행동은 점차 페드로 술렌(Pedro S. Zulen)과 도라 메이어(Dora Mayer)의 너그럽고 헌신적이지만 고귀한 개인의 행동으로 축소되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원주민보호협회는 한 시대의 도덕적 무감각을 검정하고 측량하는 역할만을 수행했을 뿐이다.

원주민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 역시 원주민 자신이어야만 한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우리는 원주민의회에서 있었던 역사적 행위들을 살펴보게 된다. 원주민의회는 최근의

26) Mujik은 러시아 농민을 의미한다.

27) 1921년 첫 번째 원주민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이와 함께 <타완틴수요 원주민권리위원회>도 구성되었다. 원주민대회는 1924년까지 해마다 개최되었지만, 1927년 정부의 개입으로 원주민권리위원회는 해체되었다.

관료주의로 인해 원래의 장점을 상실했으며, 그로 인해 아직까지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첫 번째 회합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원주민들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었다. 원주민들에겐 전국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그들의 시위는 항상 지역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 실패하게 되었다. 하지만 미래에는 사백만 숫자의 의미를 자각한 민중이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동일한 사백만 명이 유기적이지 못한 군중에 머물러 있다면, 결코 올바른 역사적 방향을 결정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김용호 옮김]

김용호 - 서울대학교 강사